

사회과학				번호: III - C - 5	
제 목	국문	우리나라 시군구 지역별 물질적 결핍 지표와 인구 일인당 평균조기사망 손실년수와의 연관성			
	영문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ivation index and years of life lost according to area in Korea			
저 자 및 소 속	국문	성주헌, 손미아, 조희숙, 최지숙, 최인정, 황문선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문	Joohon Sung, Mia Son, Hee Sk Jo, Ji Suk Choi, In Jung Choi, Moon Sn Whang			
분 야	역 학 기타	발 표 자	손미아	발표형식	구 연
			일반회원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2002년 12월				
<p>1. 연구목적</p> <p>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지역별 물질적 결핍지수(deprivation index)와 지역별 인구 일인당 평균 조기사망 손실년수와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사회계급지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p> <p>2. 연구방법</p> <p>통계청으로부터 우리나라 1990-1999년 사망원인자료를 구하여 총 사망에 대하여 각 220개의 시군구별 표준조기사망 손실년수(Standardized expected years of life lost)를 구하여, 여기에 인구수를 보정하여 인구 일인당 평균 조기사망 손실년수를 구하였다. 또한 파악할 수 있는 사망원인 결핵, 영양결핍, 빈혈증, 뇌막염, 간질, 류마치스 열 및 만성 류마치스성 심질환, 고혈압성 질환, 뇌졸중, 급성 상기도염, 폐렴, 인플루엔자, 만성 폐질환, 진폐증, 외인성 폐질환, 위궤양, 충수염, 장폐색, 자궁암, 모성사망, 영아사망에 대한 인구 일인당 평균 조기사망 손실년수를 구하였다.</p> <p>물질적 결핍변수는 통계청으로부터 구한 1995년도 센서스자료에서 가구별 정보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5개의 물질적 결핍지표를 선정하였다. '과잉밀집도', '남자 실업률', '낮은 사회계급의 가장'은 Carstairs' deprivation indices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개념을 이용하였고, Carstairs' index 에서 사용했던 '자동차 소유'는 한국의 센서스에는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것 대신 Townsend et al (1986)이 제안한 '무가옥 소유'와 '거주시설 부재'를 추가하였다. '무가옥 소유'는 단순히 가옥의 유무만으로 본다면 한국에서는 농촌과 도시의 가옥수준의 차이와 도시에서는 가옥의 전세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무가옥이면서 월세나 샴월세로 살아가는 층도 '무가옥소유'에 포함시켰다. '교육수준'도 물질적 결핍의 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낮은 교육수준과 낮은 사회계급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게 나와 교육변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해서 최종 선정된5개의 물질적 결핍지표는 다음과 같다: '과잉밀집도': 모든 가구의 거주자 중 한방에 1.5명 이상이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 '남자 실업률': 현재 구직중인 경제활동인구의 비율, '낮은 사회계급의 가장':</p>					

육체적 노동을 하는 가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 무가옥 소유: 보증금이 없는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들의 비율, '거주시설의 부족':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이 부족한 가옥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다. 각 지역별 물질결핍지표와 인구 일인당 평균 조기사망 손실년수와와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서 선형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남자실업률, 과잉밀집도, 낮은 사회계급의 가장, 무가옥소유, 거주시설의 부족지수의 z-score를 합한 점수를 총 물질적 결핍지표 (deprivation index)라고 했을 때, 물질적 결핍지표 값은 가장 물질적으로 풍부한 지역에서 가장 결핍이 심한 지역까지 -10.65 에서 +7.68까지로 나타내고 있었다. 가장 물질적으로 풍부한 지역과 물질적 결핍이 심한 지역의 전체 사망에 대한 일인당 표준 조기사망 손실년수, 피할수 있는 사망원인에 대한 일인당 표준 조기사망 손실년수, 인구집단 중 실업자, 가장이 육체적 노동자, 과잉밀집, 부실한 거주시설에 사는 사람들, 무가옥소유자들의 분포를 보면, 가장 물질적으로 풍부한 지역들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분당구, 과천시 등이었고, 가장 물질적으로 결핍된 지역은 태백시, 삼척시, 금산군, 담양군, 곡성군 등 이었다. 물질적 결핍지표와 전체 사망에 대한 일인당 표준 조기사망 손실년수, 피할수 있는 사망원인에 대한 일인당 표준 조기사망 손실년수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았다.

전체 220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

- 전체 사망에 대한 일인당 표준 조기사망 손실년수 = $0.28280 + 0.02457 * \text{deprivation index}$
($R^2=0.38$)

- 피할수 있는 사망원인에 대한 일인당 표준 조기사망 손실년수 = $0.01768 + 0.00159 * \text{deprivation index}$ ($R^2=0.35$)

4. 고찰

이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로 물질적 결핍지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물질적 결핍지표와 조기사망 손실년수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지역의 건강조사에 물질적 결핍지표 등 사회계급지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